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 따르는 교회



소그룹 모임 사진 - 휴조. 예수를 따르는 진짜 남자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이성은, 은원철, 허준, 박태원 & 김재강 조장님)

같은 공간, 새로운 방향

예배실 방향을 정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가로 방향을 단으로 쓸 때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면 무대가 넓어집니다. 단상 주변으로 성도님들과 같은 거리에서 호흡할 수 있어서, 아담한 우리 공간의 이점이 살아납니다. 자리 배치를 부채꼴과 유사하게 하니 함께 예배드리는 느낌이 깊어집니다. 앞사람의 등만 보는 것보다 좌우로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살립니다. 천정을 가리던 스피커를 내려 스탠드 위에 세우니 시야도 한층 쾌적해졌습니다.

불편한 점 중 고칠 수 있는 것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단상 양쪽에 TV를 설치하고, 메인 스피커 케이블을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무대 쪽을 비추는 레일 조명을 이설했고, 눈부신 기존 LED 레일 조명은 탈거했습니다. 찬양 인도 자리도 단상으로 올려 좌우 대칭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비용이 든 것은 스피커 케이블 교체와 티비 구입뿐인데, 8년 정도 지나 산화된 부분이 있어서였습니다. 좋은 케이블로 바꾸니 잡음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1층에 있던 티비는 고장나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조만간 피아노를 기존 TV 자리로 옮기면 찬양팀 위치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배당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가구를 옮기는 일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드릴 것인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몸 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 새롭게 단장된 이 공간에서 성도님들이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오목사 드림

예배 순서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아버지의 사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나의 하나님	인도자+찬양팀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아가 2:10-14	이시원/일어서서
설 교	바위틈에 들려오는 찬란한 봄의 초대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응답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헌 금		
안 내		
축 도		
점심 친교		다같이
조 모 임	*방문자/새가족은 오종향 목사와 함께	

성경봉독	청소정리
6/7 이시원	6/7 휴 조
6/14 이세린	6/14 청소년부
6/21 김하람	6/21 들풀조
6/28 오연총	6/28 헤세드조

교회 소식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유치부 주일예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11:00-12:10
2층 교육부실

초등/청소년 양육반

예수마당 / 어성경 구약반

초등부: 10:00-10:50
청소년부: 13:00-14:00
2층 교육부실

금요기도회

엘리야의 능력 기도 (2)

금요일 저녁
19:30-20:30
3층 예배실

담임: 오종향 목사

- 교육: 최은총 전도사, 교사: 유은희
- 조장: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 찬양팀: 김성배, 이성은, 노영숙, 은원철, 문영식
- 후원 선교사: 김남진/김성은 (유럽 기도 선교), 임일혁/송경남 (캐나다 이주민 선교), **하**/강** (동남아시아 무슬림 선교), 조샘 (라이프스타일 선교운동)**
- 자비 사역 (구제, 구호): 유니시드(북한 이탈 학생 장학), 시선오브(자립준비청년 돌봄), 이천 꽃피는봄날 보호종료아동(생계 지원), 소망을 찾는 이(노숙자, 쪽방촌)

리딩지저스

(잠언 24장, 왕상 5~9장, 대하 2~8장, 시편 134·136·146~150편, 잠언 25~29장)

오늘의 말씀

대표 낭독자: 이시원 (다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가 2:10-14

아가 2장
10.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11.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12.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3.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14. 바위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 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다같이: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소그룹 나눔

1) 오늘 설교를 듣고 가장 와닿은 한 가지는?

2) 오늘 주신 메세지를 내 삶에 연결한다면?

뉴시티교회 선교 동역 소식 및 기도제목

OMF(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_이주민 선교: 임일혁 선교사



[6월 5일 몬트리올 소식]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몬트리올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젠 이곳도 봄이 왔다 싶었는데 한여름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계신 그곳은 어떠신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처럼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저희의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과 감사제목]
-지난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작년 9월에 시작되었던 청소년 프로그램,
"Drive Through History, the Gospels"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가을 한국을 방문한 이후 벌써 3년이 지나갑니다. 작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가지 못해 힘들어서 내년 봄쯤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곳의 상황이 올해 가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9월 하순 (9월 23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뵙고 저희의 사역을 나누며 함께 교제할 시간을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의 이민자/유학생 사역들을 방문하여 보고 배우며 또한 함께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도 합니다.

[기도제목]

2. 중국인 교회 여름 행사와 청소년 모임을 지혜롭게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가족이 여름방학 동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비정기적으로 모일 가능성이 큼)
3. 중국인 청소년 모임의 리더로 청년들(중국 목사님의 두 아들, 요셉과 이삭)을 세웠는데,
이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4. 6월 15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를 잘 감당하고 배움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